



《번역문》

## “간호원의 디렘마”

The Nurse's Dilemma

<제 4 회>

### C. 환자에게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경우

간호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권리중의 하나는 자기인식에 대한 권리이다. 환자의 경우 진단, 치료, 예후 혹은 기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그의 간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의사와 간호원은 정보를 제공하고 보류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한 정보는 환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수 있다. 때때로 정보는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관습도 다양하다. 다음의 실험은 이같은 인간의 권리중 지식의 권리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의 예를 든 것이다.

#### 18. 불임사실을 감추는 것

한 산간벽촌에서 10명의 가족이 다남고 황폐한 2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집의 가장인 Mr. S는 39세로 뚱뚱하고 수염이 덩수룩한 실업자였다. 그는 학업중 3학년 때 ‘더 좋은 할 일’이 있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석탄광에서 일했으나 힘이 ‘다하기’ 시작하자 그일을 그만두었다. 현재 그는 일시 잡일을 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27세로 창백하고 체격이 작고 얼굴을 보면 어렸을 때 예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자이다. 그러나 8명의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고 대가족을 부양하느라 그들 가운데서 희생자도 생겼다. 그녀는 9번째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째였다.

어린이들의 연령은 11개월부터 12살에 이르렀다. 28개월동안 3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나 쌍둥이는 없었다. 2번째와 3번째 임신때 그부인은 거의 죽을 뻔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Mr. S는 알콜중독이 되었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술에 만취된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그는 자기의 생활환경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 같았고 이 분노가 부인과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지난 7,8년 동안 그들 부부관

계는 강간상태로 쉽게 묘사할 수 있다. 부인은 남편에게서 떠나려하는 자신의 본성과는 반대로 남편에게서 떠나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좋은' 어머니이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할 때 계속 지방 진료소의 건강요원에게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지도를 구하고 처방도 잘 따랐다.

1년전 마지막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는 산아제한을 하라는 간곡한 권유를 받았다. 그녀는 이것을 찬성했으나 남편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산간벽촌에서 조차도 쓸모가 없어진 그는 자기의 생식력에는 강하게 집착했다.

이번 임신을 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처음부터 빈혈증세를 보였고 적어도 3번의 방광염과 1번의 신우신염을 앓았다. 부인은 남편의 심한 주벽과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겨놓는 것이 두려워 입원하기를 거절했다. 임신 9개월에는 그지역 보건간호원의 세심한 간호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 같았다.

부인이 진통을 시작했을 때 남편은 이웃사람이 부인을 40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병원에서 부인의 상태는 매우 진전되어 출산진행에서 계속 자궁이 7cm까지 팽창하고는 그상태에서 멈췄다. 위축작용이 별로 실통치 않았고 1시간후에 난산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태아의 심장고동이 감소하고 있었다. 태아와 부인을 구하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부인은 두려워하면서 수술 허가서에 서명을 했지만 남편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태아는 안전하게 태어났으나 산모는 자궁이 헤르니아에 걸렸다. 곧 난소 한개만을 남겨놓고 자궁절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뒤 산모는 안정을 되찾아 2주후에 건강한 새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원들은 이부인의 사회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궁절제수술로 인한 불임의 사실을 부인이나 남편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남편이 사회적 평판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남편은 새로운 애기를 다른 자식들보다 더 학대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실제로 있었다. 그가 부인이 불임수술을 하는 이유가 어린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

른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더욱 증가시켰다.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S부인의 월경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산실 담당간호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생명보존 수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상당히 안심했다는 듯이 자신의 상황을 수긍했고, 그녀 자신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지켜왔다. 이런 출산경위에 대한 얘기가 환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로서 새로운 건강전문인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가족의 상황은 예전처럼 알콜과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이고 남편은 부인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a) 건강요원은 부인과 남편에게 정보를 브류할 권리가 있는가?

b) 그 부인에게 수술의 광범위한 성격을 적절한 시기에 알리는 것이 중요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c) 남편에게 수술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로 한다면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나? 누구와 의논해야 하는가?

남편이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일도록 할 수 있는 유효한 자원과 인력이 있는가?

## 19. 협동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

가슴앓이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 그는 가슴의 고통과 숨이 짧아 고생하고 있었고 한동안 피로가 격중했었다. 환자에 대해 많은 시험이 이뤄졌고 환자는 작은증기에 대한 치료와 약 조절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와 진단, 치료 혹은 예후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았다.

환자는 간호원에게 계속 사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의사가 적어도 중요 항목의 대요를 말할 때까지는 환자와 그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보통 간호원들은 의사가 진단결과를 밝힌 후에 환자에게 병을 알려도록 한다고 생각했다.

의사는 계속해서 환자의 질문에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간호원의 제안에도 아무런 대꾸도 안했다.

환자가 투약과 치료를 거절한 어느날 간호원은 환자에게 진단결과를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환자가 지시대로 치료를 꾸준히 따를 때와 따르

지 않을 때의 예후에 대해 계속 의논했다.

환자는 다시 자기를 치료하는 간호원에게 협력적이었다. 그러나 의사는 간호원에게 주제넘게 의사의 정당한 역할을 떠맡았다고 심하게 책망했다. 그는 환자가 진단결과나 예후를 알지 못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간호원은 환자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꼈다. 환자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그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치료하려면 그의 협력이 필요했다.

a) 의사로부터 환자의 질문에 답하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간호원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b)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간호원은 환자에게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c)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을 때 간호원은 어떤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이 그녀의 간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d) 간호원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예후를 말해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고려해야 하는가?

e) 환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 20. 환자에게 진단내용을 알려주는 것

연구과정의 한학생이 결장조루술을 받은 77세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다. 광범위하게 암이 커져 갔기 때문에 결장조루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환자에게는 암이라는 것과 죽을 때까지 결장조루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 학생이 연구하고 있던 나라에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사실상 환자에게는 진단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진단은 때때로 알려준다.

그 학생은 이것에 대해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환자가 뉘름을 살고, 유언장도 쓰지 않았고,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일하게 될 때 결정해야 할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지방의 관습에 따라 그 학생은 환자의 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환자가 자신의 사업을 정돈할 기회도 갖지 못한채 사망했을 때 그 학생은 매우 당황했다.

a) 환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그의 문제를 정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이 간호원에게 있었는가?

b) 간호원을 고용하는 기관의 정책과 간호원의 신념이 서로 상충될 때 간호원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가? 만일 있다면 이상황에서 연구과정에 있는 학생과 다른 고용인들은 어떻게 다를까?

c) 간호원은 환자가 원하는 표시를 안해도 진단이나 예후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환자에게 알려줘야 하는가?

d) 객관적으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간호원을 지도하는데, 간호교육자와 행정가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 21. 진단내용의 보류

Cheryl은 1972년 General Program에 참가한 간호학생이었다. 수차례 편도선염을 앓은 Cheryl은 이 program에 참가한지 몇달뒤 만성임파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특히 고문의사로부터 간호진들과 같이 Cheryl에게 진단내용을 알려주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Cheryl은 질병때문에 곧 학습성적이 떨어졌다. 위험한 그녀의 건강에 병원환경이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식된 후 병원의부로서 수용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처음 차도가 있기 시작한 뒤 그녀는 원하는 무역기업체의 비서직을 구했다.

Cheryl은 특수한 반유사핵분열 양성법으로 무리하지 않게 건강을 유지했다. 약 5~6개월 간격으로 그녀는 정상적인 혈액량을 회복하기 위해 1~2일간 입원해야 했다. 처음 2년간 그녀는 스텝들을 따듯이 맞이했고 병원에서의 일정한 생활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기는 것 같았다.

발병후 3년이 되자 스텝에 대한 Cheryl의 태도가 상당히 변했고, 스텝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질문하는 일이 드물었고 사회적 관계를 멀리했다. 진단이 확정된 지 3년째 Cheryl은 피사현상이 회음부에서 엉덩이에 걸쳐 급격히 확대되는 바람에 입원기간이 점차로 길어지게 되었다.

Cheryl를 돌보는 고문의사는 립혈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 엄격한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들은 독방으로 격퇴되었고 스텝진

과 방문객도 종이, 모자, 가운, 마스크, 덧신을 착용하지 않고는 그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자 간호원은 계속해서 의사에게 그녀의 궁극적인 예후에 대해 의논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이것이 이뤄졌다면 Cheryl와 그 가족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몸짓으로 나타내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고 적어도 솔직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사망하기 며칠전에 Brompton cocktail이 시작됨과 동시에 간호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가 계속되어 간호진들을 놀라게 했다.

뒤돌아보면 그 상황이 우리를 분노케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녀의 병세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친절하게 했던 것은 우리의 자비로움에 대한 표현이었을 거라고 믿는다. 생각컨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시에 복종하면서 거짓살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아마 Cheryl에게 덜 솔직했던 것이 우리로서는 고문의사에게 고독과 박탈의 세계에서 그녀를 해방시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쉬웠을 지 모른다. 결정적으로 경멸스러운 것은 무턱대고 보호격리의 기준에 Bromptons을 도입시킨 것이었고 격리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주장이 계속 고려되고 있는 동안 Cheryl는 사망했다.

- a) 인간경험을 넓혀주고, 생명 그 자체만큼 중요한 또다른 양상의 생활이 있는가?
- b) Cheryl의 사망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간호원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 c) Cheryl에게 감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간호원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 d) Cheryl의 어머니에 대한 간호원의 책임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녀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 22.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보호

최근 조그만 시골병원에서 담당간호원으로 저녁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교통사고 희생자가 내병동에 입원했다. 어머니가 몰던 자동차가 어린아이를 때운채 탈선하여 전복되었다. 나는 언젠가 그녀와 여자녀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한 아이는 입원하자 곧 사망했다. 중간 사내

아이 들은 두피가 거의 벗겨졌으나, 조직판을 제거자리에다 봉합하여, 사고를 당한것 같지 않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막내딸이 마침내 한쪽팔을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다. 13세된 큰딸 아이는 심한 뇌상처로 고생하다가 입원한 뒤 곧 사망했다. 아이들 어머니는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고생하였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차를 몰다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힌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

신경안정제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상태는 밤늦게 진정될 때까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저녁내내 그녀는 사고현장에서 가장 조용해 보였던 큰딸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몹시 걱정했다.

병동에서의 내위치와 개인적으로 그녀를 안다는 사실때문에 그녀는 출근 아이들의 상태를 알려달라고 나에게 애원했다. 딸의 죽음이 거의 확실해지자, 나는 수술실의 바쁜 일정과 의사 자신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그녀에게 무슨말을 해야 하느냐고 의사에게 물었다.

그녀 남편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역섯시간 가량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의사로부터 그녀의 고통으로 보아 그녀에게 남편과 함께 있다고 알려주는게 좋은 것 같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안심시켜야 했다.

서너시간 그녀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내게 자주 아이들 특히 큰딸에 대해 물었다. 나로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내양심에 크게 거슬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진정되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 남편과 의사가, "왜 그녀는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외치면서 그녀의 고통을 알려왔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그 이후로 나는 환경을 바꿔가면서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그녀 남편은 내게, 나의 지시가 의사로부터 받은 거라는 걸 부인이 이해하지만 내 행동과 의사의 행동은 비윤리적인 간섭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미안함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경우에 있어서 내행동이 윤리적이었다고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었다.

a) 의료진은 환자의 평온을 정당화한다는 신

념에서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취했는가 아니면 정당한 간섭의 한계를 넘었는가?

b) 의사의 지시를 따르려 하는 담당간호원이 자신의 양심에 크게 위배될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c)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믿으려하는 상황이 만약 있다면 어떤 상황이겠는가?

d) 간호원이 그 부인의 반항과 비난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e) 어린아이의 사망을 잠시 알리지 않음으로써 어떤 이익과 위험이 있었는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이 간호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f) 이 경우에 있어서 간호원이 그 부인의 친구였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는가?

### 23. 외과수술 중 발생한 사고

수술실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한 간호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45세된 부인환자의 부분적인 위수술 도구를 소독하고 넘겨주었다. 수술도중 위조직을 잘라내기 위해 조그만 칼을 사용하여 비장에 큰 상처가 남았다. 이것 때문에 비장을 골제거해야 했다.

똑같은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위아랫부분 근처의 장을 떠받치고 있는 경자도 역시 체장의 뒷부분은 죄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절개부분의 마지막 봉합을 하기 전에 체장의 흉을 제거해야 할 것 같은 정도로 지속되었다.

후에 그 학생은 환자에게 위의 원부분의 다른 기관을 제거하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학생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a) 학생이 자신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을 환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그 학생에게 유용한가?

b) 학생이 침묵을 지키다면 학생은 그 피해의 공범자가 되는가?

c) 그런 상황에서 윤리적인 책임보다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

d) 근본적으로 이것이 의료윤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에 학생이 관련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관련되는가?

### 24. 가능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것

임산부를 돌보는 간호원에게 임신 4개월의 환자가 있었다. 이때 환자는 태아에게 풍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임신 2개월에 풍진을 앓았다는 것을 알았다.

환자는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임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태아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별적인 유산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호원에게 부탁했다.

간호원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유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호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산수술을 받으려는 그 부인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 부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원이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수주일이 지연됐고 따라서 간호원이 환자의 요구에 응했다라면 덜 위험했을 수술진행이 더 위험하게 되었다.

a) 간호원의 신념이 환자의 신념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가?

b) 전문인이 인정하지 않는 법적으로 가능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 것인가?

c) 간호원과 태아간호 업무는, 필요한 간호를 위해 환자의 의견을 참조할 책임이 있는가?

d) 간호원은 자신의 신념을 좇을 수 있고 이 유가 어떻든간에 간호를 제공할 수는 없는가?

e) 과학발전이 비추어, 정기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재검토함으로써 그녀의 간호실제(행위)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간호 전문직업인의 책임은 무엇인가?

### 25. 부당한 치료의 인식

어느날 한 좋은 동료친구가 간호원인 나를 찾아와서 자기는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결과를 말해 주었다. 그녀는 자기 가족중에 치료를 하기엔 너무 늦게 암진단을 받았던 사실 때문에 혹시 암이 아닌가가 걱정했다. 이런 이유로 내 친구는 조기진단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다. 수술을 하기전 의사가 그녀 남편과 자식들에게 인터뷰를 청했을 때 그녀는 상당히 걱정이 됐고 의심이 갔다.

수술뒤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채 자신은 의지가 굳다는 말을 내게 했을때 그녀가 얼마나 심히 두려워 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수술전 그녀의 위의 크기가 비정상적이었고 의사가 그녀 가족과 얘기를 나눈 사실이 그녀에게는 자기가 두려워했던 질병을 앓고 있다는 표시가 분명했다.

병리학자가 보고한 결과는 난소암이었다. 환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자신을 가졌던 유명한 의과외사가 수술뒤 복부에서 추출되는 액체가 암이 아닌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진단을 내리기 위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수술전 의사는 환자가족에게 예상되는 진단결과를 알려 주었고 아마 1달밖에 살 수 없으리라고 했다. 수술뒤 진단이 확정됐고 예상되는 수명도 더 짧아졌다. 그러나 간호원인 환자에게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진단결과 결핵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가 허위진단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외과의사는 특별히 절제치료에 대한 처방을 해 주었다. 나와 한 동료가 하루에 두번씩 주사와 약을 주었다.

수술 담당의사가 그때 휴가중이어서 다른 의사가 담당했다. 휴가기간이라 이 의사는 매우 바쁘고 집으로 찾아가서 복수 제거를 위한 천자를 해줄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깊은 신앙심에서 행동해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내 행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부인암 전문가와 이 사건에 대해 의논했고 그는 나에게 만약 환자가 그 진단의 처방에 따른다면 예후도 더 좋아지고 수명도 더 길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더이상 항결핵 약물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동료들도 나를 따랐다. 나는 가족에게 논의사항에 대해 말해 주었고 그들은 환자를 암전문가에게 맡겨 적절한 치료를 받게했다. 그녀는 약물과 방사선의 특수치료를 받았다.

수술뒤 그녀의 생명은 2년간 연장되었다. 그녀가 사망하기 3달전에 그녀는 정상적인 활동을 중지해야 했다. 병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자 모든 사람들은 견뎌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당시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맨 처음 담당의사를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환자를 전문가에게

이송하는 것을 억제했으나 가족의 결정을 수락했다.

나는 아직도 친구의 죽음에 대해 충격을 느끼고 내태도로 달미암은 불상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a) 어떤 상황에서 간호원은 환자의 치료에 간섭할 수 있는가?

b)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구사이인 환자에게 전문행위를 행하는 간호원이 당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c) 진단 혹은 기타 의료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인가?

## 26.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 정확한 내용설명의 보류

보건간호원은 미혼모와 그녀 어린아이의 건강을 책임지고 간호했다. 사회사업가의 임무는 어린아이에 대한 제반준비를 갖추는 미혼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미혼모가 어린아이를 포기하고 양자로 주길 원하면, 법률상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혼모는 의무적으로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고 어린아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

보건간호원은 사회사업가가 미혼모에게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를 잘못 알려줬다는 것을 알았다. 보건간호원은 짧은 기일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미혼모에게 가장 좋을 것이고 그러면 미혼모가 좀더 일찍 결정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a) 행동을 취하기전 간호원은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b) 사회사업가에게 잘못을 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간호원의 책임은 무엇인가?

c) 간호원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회사업가와 의논을 해야 하는가?

d) 환자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존중될 수 있는가?

e) 정확한 내용설명을 보류하는 것에 관해, 간호원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가?

《본회협의공보부록》 <계속>